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사면요청 탄원서 넣어주시고
제 딸이 잘못된 일인데도
아드님을 나무랐던 선생님
초겨울 런닝 바람으로 보호소 나올때
“무기력함에 화가 납니다”라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렇게 선생님은 저희들 곁에
10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청춘 · 선생님의 젊음 결국 하나였네요

<취재후기> 문패 하나 없는 사무실서 외국인노동자위해 인권운동

8월 1일, 부천에 자리 잡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찾는 데만 족히 1시간 넘게 걸렸다. 약도도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어렵게 찾은 사무실에는 그 흔한 문패 하나 없었다. 복도에는 A4용지에 ‘아시아인권문화연대’라 적힌 안내문이 전부였다. 순간,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외국인노동자간 쫓고 쫓기는 어두운 현실이 기자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어렵게 만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대표. 부천외국인노동자지원회에서 10년 넘게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의료지원, 연수생 제도 폐지 운동, 산재·의보 적용 등의 활동해온 이 대표는 수줍은 얼굴을 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물을 게 뭐 있다고 여기까지...” 곧장 “왜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을 하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의 똑같이 맞으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이 나는 사람인데 말이예요.”(011)331-7145



외국인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 현실을 설명하는 이란주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대모 이란주

네पाल 두르바 구마르 뽀씨가 띄우는 편지

To 이란주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는 ‘고맙다’는 말밖에 남질 않네요. 이 선생님은 늘 ‘괜찮다’ 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말 밖에는 안 나옵니다. 2001년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 갇혀있던 저를 면회 오셨을 때도, 저는 ‘고맙다’는 말만 했죠. 그리고 제가 몰랐죠. 아내와 딸아이는 잘 있느냐고.

1992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힘든 노동을 하던 저는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죠. 나름대로 행복한 일상을 꾸렸고, 97년에는 딸 현정씨도 낳았죠. 혼인신고도 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도 얻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부터 꿈이 깨지기 시작했죠. 현정씨도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 온몸이 붉은 오이겍데기처럼 변해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죽도록 일해 돈을 벌어도 아내와 딸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끼니를 때울 돈이 없어 쪼들려야 했죠. 그래도 살만은 했어요.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정신분열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먹으라고 내미는 약을 자기 죽이는 약이라고 핑계쳤죠. 그러다 아내가 “내 남편이 불법체류자인데 나를 죽인다. 내 남편 잡아가라”며 파출소로 달려가는 바람에 전 졸지에 아내를 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졌죠.

선생님도 기막혔죠. 아내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1998년 부천외국인노동자지원회를 찾았을 때, 선생님은 ‘주민세를 내야 하는지, 국적취득하면 부인의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지,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이 되는지’ 등 이것저것 챙겨주며 힘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때 선생님은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요. 노동부와 법무부에 사면요청 탄원서를 넣어주고, 오갈 데 없는 제 딸을 선생님 집으로 데려가 석 달간 친자처럼 보살펴주셨죠. 뒤에 딸아이가 고백했는데 선생님 맥 소파를 갈로 찢어놓은 녀석이 “바로 자기”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현정이 동갑내기인 아드님 무선이란 나무랐다고.

선생님! 그 때 생각나세요? 가까스로 ‘일시보호해제’를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담장을 뚫릴 곁에 나오던 초겨울을요. 그해 여름, 런닝셔츠만 입은 채로 잡혀갔는데 그 차림 그대로 보호소를 나온 걸 볼때, 선생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뽀씨, 아무 힘도 돼줄 수 없는 무기력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선생님은 늘 말했어.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무관심한 한국사회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인도 똑 같은 사람이다,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늘 외국인노동자 친구들에게 강조했죠. 네팔 동포 찬드라 누님 때도 그랬어. 선생님은 찬드라 누님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려병자로 처리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6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한국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말했어. “서글픈 그 이름, ‘찬드라’를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말했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찬드라 누님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셔요. 정신병원에서 나와 네팔로 돌아가기 전, “한국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미워! 다른 사람들은 아냐!”란 찬드라 누님의 대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요.

태국 친구 노이의 사촌동생이 프레스에 오른손을 찍혀 몽땅 잘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도 선생님은 자기 일처럼 동분서주했지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사장에 보상을 받기 위해 선생님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노이 사촌동생의 동료들을 찾아 헤맸죠.

그때, 노이가 “잃어버린 손을 되찾을 것 같아요”라고 선생님께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선생님은 외국인노동자들과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제가 네팔에서 한국으로 온 지도 벌써 14년을 맞고 있으니, 제 청춘이나 선생님의 젊음은 결국 하나였네요. 허물없는 친구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해온 시간이나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단어가 육이었다는 얘기,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한국말을 못해 물건 사기가 겁났던 얘기를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 말이예요.

선생님, 그리고 매년 사무실 탁자 밑이나 책장에 몰래 꽂아 놓은 돈을 앞으로는 뿌리지 마세요. 이제는 집에 가서 “돈 잘 받았느냐”는 전화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선생님께 드리고 온 돈을 다시 모아 제게 돌려주시 마세요. 월급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한테 정작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밤이 늦었네요. 방학 숙제를 하던 현정이 금세 풀이 떨어졌고, 아내도 일찌감치 약 챙겨먹고 초저녁부터 자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래요.

From **현정이 아빠, 두르바 구마르 뽀**

■ 이란주 대표와 뽀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글·사진/부천=김철우 기자

가시는길, 부담되고 싶지 않은 부모마음, 고인이 되더라도 편히 모시고 싶은 자식마음,
이제 안심하십시오. 미래의 여유, 국민상조가 함께 합니다.

리무진 행사차로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단돈 하루 660원으로 해결!! 한달 20,000원씩 99회면 걱정 끝 OK!!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조여행 보증보험가입”

- 감동의 서비스** 국민상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진행으로 마치 내 가족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마음 깊은 친절과 봉사로 최고의 감동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인 서비스** 개인 행사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평소에 적은 돈으로 불입하여 행사 발생시 최저 비용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며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서비스** 365일 일년 내내 전화상담요원을 배치, 행사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장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며, 장례지도사가 그때그때 도움을 드려 모든 부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안심 서비스** 세월이 흐르면 물가변동도 예측할 수 없고 행사진행은 제대로 치루게 되는지 불안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상조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차질없이 모든 행사를 치루며, 규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은 안심하십시오.

장의 무료서비스(국민상조 회원용)

| 제 공 상 품 | 내 용 |
|--|---|
| 관 | 오동나무 1치 5푼 |
| 수의(순창포 대응직물) | 삼베(명주) 세마포 |
| 초혼, 수시, 염습, 입관, 출상 | 무료봉사 |
| 도포, 원삼, 천금, 지금, 명정, 관보, 결관보(외출배) | 무상제공 |
| 상복, 굴건 제, 복조끼 | 무료직계상주 |
| 행전, 두건, 작지, 오절, 수절 | 무상제공 10EA |
| 훈백함, 위패, 습신, 리본, 침시, 운야, 폐백, 다리니경, 입관총관물 | 무상제공 |
| 양초 향, 직신, 축문, 부의록, 선도차 장식 | 무료대여 |
| 영정바구니, 근조기, 병풍, 조등, 향로, 촛대, 잔대 | 알선서비스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장의버스, 장례식당, 이장안대) |
| 케달락 또는 장의버스 총 택일 특별무료 전국운행 | 파견 |
| 1급장례지도사 2명 행사도우미 1명 | |

※ 효력 발생은 1회차 불입 후 부타이며 일주일 내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본 증서로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
※ 회원의 반소, 손님 접대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책임지고 내 부모님 모시듯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일체의 봉사는 사절합니다)

· 본사 서울시 양천구 목 2동 131-119 KS빌딩 · 팩스 : (02)2654-1414
· 전국 어디서나 1544-4110 · H.P : 011-581-8851 (대표 남광일)
· www.kookminsangjo.com · www.kookminsangjo.co.kr · www.국민상조.com